

故 송민영

5주기 추모집



故송민영

1984년 11월 5일 광주 출생

2005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모반 학생회장

2007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

2009년 전국학생행진 중앙운영위원회 조직국장

2010-12년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차장

2013-15년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2015년 12월 2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

목차

- 송민영에게 남긴 이야기 1쪽
- 송민영을 기억하며 7쪽
- 민영이가 본 우리 20쪽

송민영에게 남긴 이야기

2020년 12월 2일은

송민영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5주기를 맞아 몇몇 선후배, 동지들이

송민영 동지에게 추모게시판에 쓴 편지를 담았습니다.

송민영 동지께

사실 저는 송민영 동지와 함께 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휴가 나오면 사무실 한 번 오라는 말이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예전에 송민영 동지가 쓰셨던 글이나, 자료를 보면서 도움을 받기도 했고, 이런 노력들을 하셨구나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았다면 조금은 덜 힘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2월이 또 오고 있네요. 2020년은 참 어렵고, 무엇을 했나 돌아보는 한 해였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송민영 동지는 어디서나 빛이 나는 사람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작은 한 발자국 내딛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취미생활도 잘 하면서 길게 보는 사람이 되도록 해봐야죠.

응원해주세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0.11.17. 추모게시판에서

글쓴이 '손님'

송민영 동지에게

송민영 동지, 벌써5년이라니 실감이 안 나네요.

우리기 말을 높었던가? 안 높던가?

동지가 언니! 하고 불렀던 건 기억 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지역에서 젊은 활동가들 힘 모아보자고 으쌰으쌰 했잖아요.

동지가 있었으면 계속 잘 되었을 것인데. 그냥 부질없는 생각 해 봐요.

동지가 결혼 선물로 양념통 줬잖아요. 나 정말 감동이었어요.

결혼 한 지 이제 10주년인데 아직도 그 양념통 쓴다니까~ ㅎㅎ
동지를 떠올리며 생각해 봅니다.

추모는, 나를 위해 하는 거구나.

내 맘속에 있는 동지를 위해 하는 거구나.

사람이 살고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동안 한 번도 못 찾아가봤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까?

가 보면 뭐가 좀 더 달라질까?

동지를 기억하게 해 주는 동지의 동지들이 있어서 덕분에 송민영
동지와의 작지만 소중한 기억들 꺼내보네요.

열심히 살게요.

2020.11.17 추모게시판에서

글쓴이 '꽃피는달'

어느새 여름

어수선한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났어.
멍하니 앉아있다가 여기에 들어와 본다.

얼마전에 네가 자주 생각이 나느냐는 질문을 받았어.
세일러를 떠나보내고 난 직후에.

종종 생각이 난다고 했지.
버스를 탔는데 너랑 비슷한 뒷모습의 누군가를 보고 흠칫 놀랄 때도 있었고,
연남동의 활기찬 젊은이들 속에 네가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지금처럼 멍하니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때도 있지.

어느새 여름이다 민영아
민소매 티를 즐겨입던 너의 모습이 그립구나.

그곳에서는 요일 개념도 없겠지?
그래도 일요일, 잘 보내렴.
또 올게~

2020.07.19. 추모게시판에서
글쓴이 '문설희'

이번 겨울은 참 따뜻해서

네가 있는 세상이라면 오늘이 어떨까
지금보다 조금 더 시끄럽고, 조금 더 안심하고, 조금 더 위로받고,
조금 더 모험적이고
그런 좋은 것들만 생각난다

이번 겨울은 참 따뜻해서

송민영이 좋아하는 코트입고도 데모다닐만 했지
뭐든 쉽게 하지 않을게, 쉬운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을 잘 해볼
게

2020.02.25 추모게시판에서
글쓴이 '손님'

어제 너도 와서 봤지?

울 려목이가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

어제 너도 와서 봤지?

복희 미경 언니도 (신종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올라와서 축하해주셨어.

한 차 타고 올라온 충북 사람들랑 신부대기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의 모습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분명 너도 함께 였을거라...

려목이 잘 살도록 응원해주는 역할은 이제 우리가 할게,
너는 지켜보면서 웃음짓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 ^

2020.02.02 추모계시판에서

글쓴이 '복대동 순이'

송민영을 기억하며

2020년 12월 2일, 5주기 맞아
몇몇 선후배, 친구들이
'송민영을 기억하며' 쓴 편지를 담았습니다.

‘민영 누나에게’



누나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안부를 묻는 것 같아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곳에서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푹 쉬고 계신가요?

누나를 떠나보낸 그날 저녁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고 백남기 어르신의 따님 백민주화님이 발언하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마지막 말이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새벽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누나가 떠오르면서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위에서 평평 울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훌쩍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운동의 위기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에서

감히 길을 밟혀줄 수 있는 그런 등불 같은 사람이 민영 누나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로 희망이라는 말을 누구보다 들어야 할 사람은 민영누나라고 막 소리치고 싶고 알리고 싶었어요. 누나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었다는 말을 이제서야 해봅니다.

누나를 오래오래 사람들이 기억하고 다시금 희망이라는 말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조금은 희망을 더 마음에 품고 동지들이랑 같이 누나 만나러 갈게요. 고마워요 민영누나

글쓴이 박진우

보고 싶은 민영총 언니야.

서른 살에서 서른다섯 살.

다섯 살을 더 먹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었어요.

나는 완전히 독립을 했고, 몸이 소소하게 많이 아팠고, 사건과 사람에 더 무던해졌고, 내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일하고, 싸우고, 웃고, 사랑하면서 보낸 시간들이었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했지요.

내 삼십대에 언니가 없다니 너무 아쉽다.

모든 게 미숙하던 이십대와 다른 질감의 삼십대가 나는 좋아요.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변명 뒤에 숨을 수 없고, 혼자 해내야 하는 것이 많아지고, 책임의 영역이 늘어가는 이 시기를 나는 정말 잘 살아내고 싶은데, 총 언니가 있었으면 찰떡같이 나눌 수 있을 텐데.

남들보다 몇 배 더 부지런하게 살았던 언니는, 남들보다 몇 살은 더 어른 같았지.

그런 언니에게 나는 너무 어린아이 같지는 않았을까?

언니와 지금 다시 만나면 예전보다 할 수 있는 이

야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줄 수 있을 텐데.

춤, 음악, 술, 사람.

쏭언니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춤과 음악에 문외한인 나는 언니와 함께한 기억이 반쪽인 거 같아서 속상해지곤 해요. 너무 일 얘기만 많이 했던 거 같기도 하고요.

일 할 때의 언니도 물론 완벽했지만, 내가 언니를 흡모한 진짜 이유는 바로 놀 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훌륭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졌는데 그걸 뽐내지도 않고 그냥 어떨 때 톡- 꺼내놓고 쿨하게 즐길 뿐이었던 사람.

장담컨대 전 지구를 통틀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다시 생각해도 행복합니다.

내가 찍어준 언니의 사진이 별로 없는 게 종종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어요.

언니를 다시 만난다면, 제일 비싸고 좋은 스튜디오에서 언니의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를 계속 들었어요.

“라라라라라라
너의 손을 꼭 잡고서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라라라라라
사라지지마 흐려지지마
영원히 영원히 여기 있어 줘”

언니의 손을 꼭 붙잡을게요.
다가오는 시간들도 잘 살아갈게요.

언니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많이 바쁘겠지만, 번호표 뽑아놓고 보채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내 곁에도 가끔 들려줘요.

2020년 겨울에. 언니가 많이 예뻐했던 수진이가.

민영이에게

시간은 참 야속하게 흐르는구나. 내 시간은 유독 빨리 흐르는걸까. 왜 이렇게 나는 기억하는 게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 기억력이 나쁘다면 차라리 속편할텐데, 이건 기억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정의 문제라는 생각을 요즘 특히 많이 해.

네가 세상을 떠난 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민영이가 그랬지.

학생 때, 퇴근하러 짐 다 싸놓고선 힐링하겠다고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기어코 다 보고나서야 퇴근하던 모습.

글이면 글, 그림이면 그림. 무슨 일이든 척척박사님 똑딱똑딱 일처리하는 모습.

술취해서 돌고래소리를 내며 뛰던 모습.

그렇게 옆에 있는 민혜를, 윤영이를, 승하를 꼭 껴안던 모습.

눈을 감고 머리를 옆으로 기대듯 노래부르던 모습.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신기했던, 그냥 그러

려니했던 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야 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슬펐어.

막상 너와 나, 우리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네.

몇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하곤 했는데
나는 고등학생 때 이미 너를 알았다고
그래봤자 수능 마치고 몇 주 동안 구술면접 학원
에서 만난 게 다였지만.

몇개월 후 봄, 대학로 반전 집회에서 너를 만나곤
엄청 반가웠어.

그리고 사회 진출까지. 너무나 신기한 인연이고 감
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몇 번 너한테 얘기도 했던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외에는 이렇다할 기억이 별로 없나
봐.

현장에 가있을 땐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고생이 많다 애쓴
다하는 말에 우쭐하다가도
얼마 안 가 그런 이야기가 공허해지고 심지어 듣
기 싫어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저만큼 앞서나간 것처럼 보이는 동기들을 보면 우울하기도 했다.

누가누가 어땠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듣다가도

내일은 내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설핏 찾아 올 때는

더욱 더 고개를 파묻고 하루하루에 묻혀살려고 했던 것 같아.

어떤 일정의 뒤풀이였을까.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너랑 둘이 이야기하다

요즘은 어때? 묻는 말에 내가 밑도 끝도 없는 푸념을 하니 네 활동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한발짝 옆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얘기해주던 너의 걱정을 그려려니 넘겼던 기억이 나.

너, 윤영이, 상은이가 동기들 살뜰히 걱정하며 동기모임을 조직할 때도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웠던 것 같기도 해. 아마 2015년쯤 더 그랬던 것도 같고.

참 미안해.

네가 떠난 후에서야 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너랑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 분회를 결성했을
때도, 투쟁하는 순간순간에도, 힘들 때도, 여행을 가서
즐거울 때도, 우울증이 왔을 때도. 네가 함께여서 고마
웠어.

네가 떠나며 어떤 미래가 하나 사라졌다는 말을
곱씹곤 해. 특히 하루하루에 고개를 파묻고 살고 싶어
질 때 종종.

우리에겐 훌륭한 동기들과 동지들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지.
민영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 그
래서 참 고맙고 행복해. 보고싶다.

글쓴이 이희태

그리운 민영이

우리는 모두 그날, 가슴에 송민영 모양의 구멍이 났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픔과 웃음을 채워가며 그 구멍을 메꾸고 덧대어가고 있다.

하지만 무얼 가지고서도 절대 그 모양이 될 수 없어서

우리는 아직 들팡듬성 마음에 틈이 남아있다.

우리 중에 여럿은, 그 틈이 틈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커서

아직도 절룩거리기도하고 어느날 갑자기 생각이나 잔뜩 취하기도한다.

혹은 갑자기 니 생각이 나는 무언가 일상에서 흑치고 들어올 때면,

웃는지 우는지 모를 얼굴로 마주하며 네 생각에 잠기고는 한다.

그 공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서
가만히 앉아서 응시해도 괜찮고
그리 우울만은 아니고 이제 슬픔만은 아니지만
분명 그리움인 것은 맞아서 그것만은 어찌할 도리
가 없다.

너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와의
기억에는

사케도 과메기도 세상에나 - 많은 종류에 술과 안
주가 있고

나에게도 그 중 여러 개가 있어 소중하게 기억에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니가 청주에만 있다고 한 딸기우유색
택시부터

네가 같은 공간에서 하고자했던 여러 가지 모두다.

이제 민영이는 서른둘에 머무는데 -
자꾸 우리는 그 모습에서 멀어지고
같이 나이 들지 못하는 게 너무 서러워서
생각이 나는 날에는 몸을 뒤틀며 괴로워해도
너는 돌아올 일이 없다.

우리는 다만 니가 남긴 틈을 서로의 어깨로 최대
한 좁히며

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그 사이를 가만히 바라
볼 뿐이다.

그렇게 너를 슬퍼하는 걸 싫어할 너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눈빛으로 남은 길들을
함께 걷자.

글쓴이 김성영

민영이가 본 우리

민영이의 5주기를 맞아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친구 민영이를 기억하며
생전 민영이와의 사진,
민영이가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고
모은 이야기조각을 담았습니다.



오랜 수험 생활이 끝나고 홍대에 나온 날이었고 너를 오랜만에 만나던 날이었어. 난 그날 그간 가장 하고 싶었던 걸 했는데, 바로 ‘아이폰 출시 되자마자 바로 사기’였어. 홍대의 눈에 띄는 핸드폰 대리점에 들어가서 갓 출시된 아이폰6를 샀다. 그리고 너를 만나서 뜼양꿍을 먹으러 갔어. 그리고 어디 해물찜 집에 가서 또 흥청망청 하다가 갈지자를 그리면서 집에 들어온 것 같다. 그런 하찮은 날들이 계속 될 줄 알았지.

명조체 간판으로 되어있던 뜼양꿍 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때 ‘live’기능을 써보며 너를 가장 먼저 찍었던

아이폰도 이제 다른 걸로 바꾸었다! 여전히 뜰양궁에 고수 같은 지저분한 야채는 넣지 않고 있지만, 바꾼 핸드폰의 사진첩의 1번 사진은 네 사진이야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너와의 알량한 추억들을 계속해서 되뇌게 된다. 더 이상은 올라오지 않는 너의 계정들을 가끔씩 들어가 보고, 내 모습 단장하곤해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이런 드립 니가 좋아할 거 같아)

사랑스러운 내 친구야. 너가 봐줄 사람이 너무 많지? 내가 가끔은 너를 생각하듯, 너도 가끔은 나를 지켜봐줘.

글쓴이 강여울보라

아직 긴 잠을 자는 내 친구, 가끔 고운 잠 뒤척이며
우리 생각해주나요?

유치하지만 쏭이라면 기뻐할 이야기. 나 있지,
그동안 새로 만나는 사람들 많았지만 친구하려고 가까
이 가보면 쏭과 너무나 비교가 돼. 정말 하품 나오게
시시한 애들 한 트럭이야. 눈만 높아진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다 더 친구 없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그
래도 함께 갔던 곳들, 계절 바뀔 때마다 나누던 새삼
스런 얘기들, 취향들, 우리를 깔깔 웃게 한 비밀들 그
대와 나눠가진 것들 마주칠 때마다 여전히 너무 좋다!

그 사이에 그래도 내가 엄마가 됐잖아? 마이쏭이
가까이 있었으면 이승하 진짜 수고했네, 눈을 길게 감
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일 그 모습이 딱 상상된다. 지금
도 전화 걸면 받을 것만 같아. 딱 그렇게 말할 것만 같
아. 마지막 1년 동안 멀리 있었고 쏭의 떠나는 모습을
함께 못한 나는, 그냥 내가 타지에 있고 쏭은 서울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두고 지내. 그러다 막상
서울에 와보면 쏭이 없어서 빈 마음이 잘 안채워지지
만. 듣는 셈 치고 문자도 보내보고, 같이 마시는 셈 치
고 술잔을 하나 더 놓기도 하고, 때론 어제 일처럼 올
고 때론 아무일 없는 듯 웃으며 그렇게 5년이구나. 남

은 우리가 여전히 제멋대로의 얘기 속에 허구현날 마이 쏭을 불러대고 있지만 다 너그러이 받아줄거라 믿어요. 수다자리에도 껴야하고 꿈에도 나와야하고 일기쓰면 들어줘야하고 우리 쏭은 여전히 바쁘다 바빠!

마이쏭의 생일을 지나 겨울로 가는 길목, 쏭이 머플러 칭칭감던 요맘쯤이 되면 더 마음이 시린데 어디 좋은 방법 좀 알려줘봐. 쏭이 좋아할 찐한 모츠나베 국물로 기름칠 좀 해야할까? 5년이라는데...5년이면 그래 아직 사무쳐 마땅하지? 우리 더 오래 먹먹해도 괜찮지? 좋아하던 쟁한 진이나 한잔하며 밤새 네 이야기만 하고 싶다.

글쓴이 이승하



충북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같이 갔던 안산
벚꽃.

난 집 주변이어도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집 가는
길 말고는 다른 곳은 가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민영은
어찌나 그렇게 주변을 잘 알고 속속들이 누비고 다녔는
지 싶다.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준 민영 덕분에 봄이 되면
안산에 꽃 보러가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봄마
다 가면 민영이 생각난다.

뭘 잘 모르는 내게 민영은 늘 신기한 사람이었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늘 챙겨주고 함께 하자고 복돋아주
는 그 마음이 늘 생각난다. 보고 싶다.

언니에게 사랑을 보낸다



이미 결혼한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미드를 봤다. 드라마는 두 남녀 주인공의 시점을 번갈아 가며 보여주는데, 누구의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미 벌어진 사건이 다르게 그려진다. 두 사람은 본인의 행동은 물론 상대방이 입었던 옷, 표정, 말투부터 제삼자의 반응도 다르게 기억한다. 만남 초반을 보면, 남자의 기억 속에서는 여자가 도발적으로 유혹했고, 여자의 기억 속에서는 남자가 선을 넘어왔다. 누구의 기억이 맞는 것인지 영원히 알 수 없다. 아마 서로 조금씩 맞고 조금씩 틀렸으리라.

“민영이가 찍은 2015년의 네 사진이야.”

윤영언니가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그 사진 속 상황이 기억 저편에서 떠올랐다.

“이 날 기억나요! 저 제주도 여행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민영언니한테 연락해서 서울 도착하자마자 만나서 낮술 했어요.”

“이것도 있다!”

“이건 2013년에요. 이때 상근자 소풍 갔는데 승하 언니가 아팠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미드의 주인공들이 떠올랐다. 나의 기억은 얼마나 주관적이며 띄엄띄엄 일까. 내 기억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해도 될까? 누군가와 서로 자신의 기억이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싸우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듈다. 모두가 당시에 본인이 느꼈던 감정과 받았던 상처를 중심으로 사건을 취사선택해 기억하기 때문이다.

민영언니의 죽음은 여전히 내게 여러 가지 상실감과 슬픔을 준다. 앞으로 민영언니에 대한 나의 기억이 더 이상 업데이트될 수 없다는 사실도 큰 상실이다. 민영언니가 살아있다면, 언니의 삶과 말, 행동, 그리고 언니가 겪는 스스로의 변화들이 내게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내가 아는 언니의 모습이 재구성될 텐데. 하지만 이제 민영언니는 내 기억 속에서 나의 주관에 의해서만 재구성된다.

민영언니의 장례를 치르고 몇 번의 추도식을 거치며 나는 생각했다. 죽음에 대한 추모와 애도는 결국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 하지만 언니와의 추억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시간은 멈추지 않아 나는 다섯 살이나 더 먹었는데, 언니와 함께 했던 날들은 들지 않고 그대로다. 나중엔 다른 시간들이 너무 커져, 언니와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작아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민영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눠 받고 싶기도 했다.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언니가 서로의 마음을 오고 가면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날이 있다. 너무 좋아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날 나는 민영언니를 많이 찾았다. 아마 혼자서 처음으로 제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던 날이었을 거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행객들과 어울렸던 경험은 무척이나 신선했다. 여행을 마치고 올라오면서 민영언니 생각을 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를 만났고, 대낮부터 술을 마시며 여행 얘기를 했다. 그때 언니가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저 사진을 찍어주었다.

언니는 그 후에 내가 갔던 게스트하우스로 떠났다. 하지만 마침 같은 날 제주에 머무르고 있던 서울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느라 결국 외박을 했다고 했다.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를 놔두고 다른 데서 놀다 와서 아침에 게스트하우스 사람들 얼굴 보기가 어색하다고 했다.

그때의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늘 같은 곳에 머물렀다. 많은 친구들은 떠나려 했고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떠났다. 우리는 벗어나려는 친구들을 말렸다. 하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다. 불안정한 기류가 비행기를 항로 밖으로 흔들듯이, 청춘들은 대부분 불안정했다. 아니다. 그때는 떠난 친구들만 흔들린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전체가 불안정한 기류를 탄 비행기나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모두 불안정했다. 민영언니는 흔들림을 잘 참고 버틴 사람이었다. 흔들림을 겪어낸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었을까. 나는 언니가 여전히 궁금하다. 많은 친구들이 떠났다 돌아올 때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던 언니는 가장 먼저 멀리 떠났다.

민영언니가 이 세상에 없는 게 슬픈 건, 언니에 대해 내 주관대로 생각하는 게 싫어서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알아가고 싶다. 언니의 말로 듣고 싶다. 이 마음은 사랑인 것 같다. 언니에게서 받아왔던 마음이기도 하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안정감. 사랑을 맘껏 주지 못해 아쉽고 아쉽다.

나는 이제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지 않는다. 오랜

친구들만으로도 충분해서 그런건 아니다. 오랜 친구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여럿 잊었다. 이렇게까지 쓰고보니 민영언니는 여전히 내곁에 있기에 언니를 잊었다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마음도 든다.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내 곁에 있었을거라는 나의 믿음이 맞는지 아닌지는 영원히 알 수 없지만 그 믿음 덕분에 언니는 영원히 내곁에 있다. 나는 어디서든 언니를 떠올리면 사랑이 인다. 원망도 억울함도 없이 오로지 사랑. 그뿐. 나의 주관적인 기억만으로 언니가 존재하는게 싫었지만 언니가 내게 준 좋은 것들만 간직하고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어 좋은데? 영원한 친구. 그게 누구일까 묻는다면 단연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민영언니.

5주기 추모 페이지에 올라온 겨울 강 앞에서 찍은 언니의 사진이 예쁘다. 그동안은 언니에 대한 사랑이 갈 곳이 없어 시렸는데 이제는 보낸다. 사랑을.

언니, 겨울이 왔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낸 사랑으로 따뜻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랄게. 어디서든 다시 만나자.

글쓴이 '김민주'



민영이의 완성은 역시 한 잔의 술과 함께.
제일의 주당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민영, 어디서
든 즐겁고 맛있게 술자리를 만들어간 민영이의 술과 함
께 한 순간들☆



예쁜 사진 찍기 좋아하는 민영이는 이따금 '사진 찍을 일이라곤 인증샷밖에 없'다며 바쁜 날들을 원망하곤 했지만, 민영이가 찍으면 인증샷마저 느낌있어요. 역시 송민영 ㅋㅋㅋ *

피켓을 든 민영이의 사진을 이것저것 모아봤어요



<송민영의 꿀피부 관리법>
음주를 통한 충분한 수분보충!
번거로운 로션 에센스 크림 따윈 필요 없어 찹찹
스킨 하나만 바른다!
화장품 지출 대신 음주 비용이 확보되는 선순환!

- 이승하



<송민영의 아이스크림 레시피-다이어터 버전>

우유나 두유를 냉동실에 얼린다!

중간중간 수저로 섞고 긁어주세요!

적당히 빽빽하게 얼음가루들이 생겼을때 콩가루나

견과류를 조금만 섞어서 맛있게 먹어주세요!

*당류가 조금 들어간 두유를 골라야 해요! 하루에
허용된 모든 칼로리는 술과 안주를 위해 소수점까지

바쳐야합니다!!

- 이승하



이토록 상큼한 우리라니. 투쟁할 때도 마냥
예쁘기만 하네요. 그런데 우린 아이돌 얘기, 옷 얘기,
음악얘기 같은 거 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언니,
근데 그거 알아요? 언니가 좋아한 랩퍼들 다 약했대요

ㅋㅋㅋㅋㅋ

– 채려목



언니와 함께 서울, 청주, 대구, 이태원. ♪
언제 어디서나 언니가 흔적으로 남아있네요.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우리가 마지막 함께 한
날. 이태원-홍대로 옮겨가며 놀았죠. 지금이라면
불가능했을 일ㅠㅠ 언니 방에서 크게 힙합음악을
틀어놓고 자던 그날 밤을 저는 영영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랑해요 언니.

- 채려목

故송민영 5주기 추모집

펴낸 날 2020년 11월 29일

펴낸 곳 사회진보연대

주 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29길 14-1 3층

전 화 02-778-4001

메 일 pssp4001@gmail.com

홈페이지 www.pssp.org